고흥 화력발전소 유치 주민 갈등

외나로도 우주센터 인근에…포스코, 건설 의향서 제출

"지역발전 계기" "청정 이미지 훼손" 지역사회 양분 조짐

포스코건설이 고흥에 추진하는 대규모 '유연탄 화력발전소' 건설 추진〈광주일보 1월 9일 2면〉과 관련 지역 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6일 고흥군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인근 마치산 해변 300여만㎡에 4000㎿급 유연탄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 지난해 11월 고흥군에 발전소 건설 의향서를 제출했다.

오는 2020년까지 1000㎿급 4기가 건설되며, 추정 사업비는 7조원이다.

포스코 측은 내부검토 결과 봉래면 일대 수심이 20만t급 벌크선 입출항이 가능할 정도로 깊어 원료수급이 쉽고 송배전 계통 확보 등도 무난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봉래면 번영회 등 일부 사회단체는 유치 서명운동에 나선 반면 농민회와 전교조 등은 반대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가 양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흥군은 설명회 기초자료를 유치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사실상 사회단체를 통한 유치대리전을 펴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군은 화력발전소 유치와 관련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고흥군의회는 앞서 원전 후보지 논란과 관련, 조기에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화력발전소 후보지의 적절성 논란도 거론되고 있다.

건설 후보지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인 외나로도 일대인데다 나로 우주센터까지 인접해 청정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하다.

유치위원회 관계자는 "발전소가 유치되면 지역발전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최신 설비가 들어서는 만큼 우려하는 환경오염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대측 주민들은 "발전소 가동과 함께 공해유발은 필연적이어서 청정 이미지를 훼손할 것"이라며 "후손에게 깨끗한 고향을 물려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고 반박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관련법상 해당 지역민 신청뒤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주민투표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며 "2월 초쯤 신청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축제

전국 인상깊은 거리축제 2위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축제'가 산림청 주관의 가로수를 활용한 거리축제 중 인상 깊은 축제 2위에 선정됐다.

담양군은 "산림청이 지난해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5개 도시 거주하는 국민 1300명을 대상으로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축제'가 2위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산림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장 인상 깊은 거리 축제로 공무원 91.9%·국민 88.3%가 1순위로 전국 '벚꽃 축제'를 꼽은데 이어 공무원 5.5%·국민 6.8%가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축제'를 꼽았다.

3위는 공무원과 국민 각각 1.3%가 선택한 '이팝 축제'가 4위는 '무궁화 축제'가 각각 선정됐다.

한편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축제'는 지난 2000년 국도 확장 공사로 베어질 뻔한 위기에서 담양군민이 힘을 모아 지켜낸 것을 기념하며 가로수 군민연대가 주관해 개최하던 음악회를 지난해에 생태환경 축제로 확대 개최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전남 뱃길 설 귀성객 작년보다 크게 줄어

전남 동부·서부 설 명절 귀성객이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로 인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설에 여객선 등 배편으로 여수와 고흥 등 전남 동부지역 섬을 찾은 귀성객은 3만6510명(여객선 2만5182명·도선 1만1032명)으로 지난해 설 5만3935명(여객선 3만398명·도선 2만3537명)에 비하면 32.3%가 감소한 것이다. 감소 폭은 여객선 이용객이 17.2%, 도선 이용객은 51.9% 등으로 집계됐다.

목포·완도지역 역시 지난해 보다 10~18% 줄었다.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설명절 특별수송기간인 지난 20일부터 6일간 관내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10만2487명, 차량 2만7976대를 수송했다. 지난해 설 특별수송기간보다 여객은 18%, 차량은 10% 감소했다.

목포지역은 여객 5만6615명(차량 1만5072대), 완도지역 여객 4만5872명(차량 1만4904대)으로 집계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여수~거문도 항로에 풍랑주의보가 5차례나 발효되면서 운항이 통제됐고, 최근 고흥 녹동~소록도~거금도를 잇는 연도교 개통 등으로 평소 배편 성묘객이 차편 이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담양 슬로시티의 설경 지난 2007년 '슬로시티'로 지정된 담양 창평면 삼지천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설경을 만끽하고 있다. 1510년께에 형성된 삼지천마을은 여러 채의 전통한옥과 돌담길 등을 잘 보존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거꾸로 타고… 연기 없고… 이색난로 콘테스트

담양 삼지천마을 '에너지 순환 달팽이시장'

'슬로시티'(slow city)로 지정된 담양 창평면 삼지천마을에서 손수 만든 난로를 주제로 한 이색적인 축제가 열린다.

담양 창평 슬로시티위원회는 오는 28일 담양 창평 슬로시티방문자센터 일원에서 '에너지 순환장터 달팽이시장'을 개최한다.

이날 열리는 자작 화목난로 콘테스트 '나는 난로다'는 자작난로의 연소효율과 안정성, 내구성, 미적 조형성, 제작 편의성 등을 심사해 시상하는 축제로, 적정기술을 활용한 난방대안 제시와 대안에너지 개발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치열한 예선을 거쳐 ▲아래로 타는 화목난로(정종훈) ▲내화벽돌을 이용한 드럼통 벽난로(서영문) ▲연기없는 난로(송윤영) ▲오래 타는 축열식 오븐 난로(류제경) 등 24점이 본선에 올랐다.

이밖에도 헌옷과 가전·가구 등 헌 제품을 경매하는 '달팽이 만물상'을 비롯해 다양한 '슬로푸드'를 맛볼 수 있는 '명인장터'(슬로푸드·슬로아트), 태양열 온수기 등을 선보이는 '에너지 대장간' 등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열린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서기동 구례군수 소환투표 무산 되나

추진본부 대표 사퇴에 서명 주민수도 미달

수뢰혐의로 구속됐다가 최근 석방된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한 소환투표가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서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운동을 벌여왔던 추진본부 대표가 사퇴한데다 서명인수 역시 소환투표 실시요건에 미달됐기 때문이다.

구례군수 주민소환추진본부 권수안 공동대표는 26일 "서 군수가 무죄를 받아 소환투표를 할 명분이 없어졌다"며 "군수가 복직한 상황에서 소환투표를 할 경우 또다시 행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표직을 사퇴했다. 이에 앞서 최근에는 주민소환 추진본부가 구례군 선관위에 제출한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가 서명인수 요건에 미비돼 인원에 대한 보정통보를 받기도 했다.

구례 선관위는 서명부상의 5491명에 대한 하자서명 등에 대한 실사에 나서 유효 3216명·무효 2천275명으로 판단했다.

이는 소환투표 실시 요건인 구례군 전체 투표권자 2만2918명의 15%인 '3438명'에 222명이 미달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10일의 보정기간 안에 이를 보완하도록 추진본부에 통보했다.

이번 소환투표는 당초 이르면 다음달 29일, 늦으면 3월 7일에는 치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보정 결정에 이어 추진본부 대표 사퇴 등이 맞물리면서 자칫 투표 무산 등까지 전망되고 있다.

한편 서 군수는 인사, 관급공사 등과 관련 직원과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12월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벤처형 농촌 청년사업가 '무럭무럭'

전남농기원 21명 양성…31일까지 10명 공모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일자리를 창출해 내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비전을 가진 '벤처형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0년부터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진해 소득을 높이고, 고용을 확대해 나가는 등 '벤처형 농촌 청년사업가' 프로젝트를 추진, 현재 21명의 청년사업가를 양성했다.

지난 2010년 귀농한 보성군 정경모(32)씨는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방울토마토 농사로 1년만에 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정 대표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한 SNS 마케팅으로 우수고객을 확보하고, 최대한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해 생산량의 75%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31일까지 사업계획을 공모한 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10명의 예비 창업농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경영체에는 창업농가의 자산증가 부분을 제외한 생산·가공·경영·유통개선·수확관리 등 농업분야 창업을 위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송기동기자 song@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흥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백산쇼핑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032)329-4400 남양주점(평내호평역 앞):070)8829-9903 부산 서면B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중앙로터리 옆):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청 옆):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 구)도청열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